

“만성지구 임시주차장 조성 힘써달라”

우범기 전주시장, 주차장 부지 현장점검... 시민 불편 해소 위해 단계적 주차공간 확충 추진

전주시가 만성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주차공간을 늘리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22일 만성지구를 방문해 주차난 현황을 살펴본 뒤 임시주차장 조성 등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22일 만성지구를 방문해 주차난 현황을 살펴본 뒤 임시주차장 조성 등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만성지구는 전주지방방법원·검찰청 이전과 공동주택 입주, 갈수록 증가하는 상업·업무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시는 만성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 10개소의 주차장 용지 중 현재까지 6개소를 매입해 3개소는 공영주차장으로, 다른 3개소는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 개방했다.

아직까지 매입하지 않은 용지 4곳 중 만성시티프라자 앞 상업지역 내 부지와 지식산업센터 앞 부지 등 2곳

에는 총 200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해 올 하반기에 개방할 계획이다.

나머지 2곳에도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향후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과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등을 통하여 만성지구 주차불편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현장에 찾은 우 시장은 전북개발공사, NH전북본부 등 주차장 용지 소유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임시주차장 조성에 힘써달라고 특히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만성지구에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되면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전문인력 양성

전주시, 8월 12일까지 음향기술 무료 교육생 모집

영화 효과음원 국산화에 앞장서 온 전주시가 대한민국 음향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다음 달 12일까지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음향기술 무료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교육에는 영화·영상·음향 관련 재직자와 관련 학과 재학생·졸업생은 물론이고 음향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다음 달 17일부터 30일까지 하루 3시간씩(오후 5~8시)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음향교육실에서 진행된다.

효과음원 제작을 목표로 현장능



숙부터 폴리 시운드 제작 등 음향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뤄지며, 우수 교육 수료생에 대한 일자리 연계도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 희망자는 J-디지털교육관리시스템(jedu.jca.or.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 교육일정은 온라인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81-4183) 또는 전자메일(st2904@jca.or.kr)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강화’ 협력체계 구축

전주시, 제9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 열어

전주시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지난 22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복지서비스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9기 전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제9기 전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는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여성·다문화 등 다양한 복지기관 대표와 교수, 공무원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들은 오는 2024년 6월까지 각 분야를 대표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이날 민간공동위원장에 장성관 확산복지관장을 선출했다. 이들은 공동 위원장인 우범기 전주시장과 함께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민선5기 전주 복지환경국장장은 “일선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를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더불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제9기 대표협의체가 긴밀히 협력해 복지의 중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지난 22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복지서비스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9기 전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전주시는 지난 22일 한국관광공사 해외일본팀 및 전북지사와 함께 일본 오사카·나고야 여행업계 관계자 16명을 초청해 전주의 다양한 관광명소와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전주시,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 초청 팸투어

드라마 촬영지·한옥마을 방문·공예품 만들기 등 진행

전주시는 지난 22일 한국관광공사 해외일본팀 및 전북지사와 함께 일본 오사카·나고야 여행업계 관계자 16명을 초청해 전주의 다양한 관광명소와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보다 많은 해외관광객 유치로 방역당국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면제 조치 이후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는 지역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이날 K-DRAMA 등 수요가 높은 일본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춰 이번 팸투어를 통해 다양한 체험과 전주의 전통음식 그리고 관광자원 등을 홍보했다.

팸투어에 참가한 일본 여행사 관계자들은 최근 K-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전주의 문화관광자원들과 연계해 한류 콘텐츠를 담은 여행상품 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

이들은 드라마 촬영지와 한옥마을을 둘러보며 판소리와 공예품 만들기 체험도 했다.

시는 향후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해외지사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여행객을 유치하는 데 공을 들일 계획이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으로 글로벌 아웃바운드 시장의 경쟁이 열면 가운데 전주시가 그간 꾸준히 준비해 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외에 선보이고 있다”면서 “여행사 관계자들이 전주의 매력을 발견하고, 여행상품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하여 아시아 관광객 주요기 중 하나이며 가깝고 먼 나라 일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자녀와의 행복한 관계’ 놀이 인식교육

전주시, 사회혁신전주서 놀이 특강 진행

전주시는 지난 12일과 22일 2차례에 걸쳐 사회혁신전주서 학부모 등 전주시민 80여 명을 대상으로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우는 놀이 인식교육을 실시했다.

“놀이를 통한 자녀와의 행복한 관계 형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서유지 한국부모교육연구소 소

장과 유은희 아동발달심리치료센터 대표가 올바른 부모의 유형과 역할, 자녀와 행복한 관계 형성을 위한 놀이의 중요성 및 다양한 가족 놀이 유형 등을 소개했으며 참여한 학부모들과 아동 관련 상담도 진행했다.

시는 다음 달에도 놀이인식개선교육을 대면·비대면(ZOOM)으로 두 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 장정수 교정선학교 대표 등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놀이 활동을 진행해온 놀이전문 강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아호놀이전주 누리집(www.jeonju.go.kr/yaho)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아호아이놀이과(063-281-5364)로 하면 된다.

시는 아동이 마음껏 떠돌고 놀며

/김윤상 기자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 유관기관 합동캠페인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22일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와 함께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하계 휴가철 행락객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9지구대의 지난해 통행량 분석에 따르면 따르면 6월 통행량은 277만여대, 7월은 301만여대, 8월은 317만여대로 6월 대비 14% 증가했다. 올해 하계휴가철은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통행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하계 휴가철 통행량 증가에 따라 최근 3년(2019~2021년) 교통사고 평균 발생 건수는 6월 8건인 것에 반해, 8월은 13건으로 6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 및 부상자 수는 최대 4배까지 증가했다.

이에 9지구대는 하계휴가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졸음, 과속, 주시태만,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과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뉴스

덕진야호청소년센터, ‘탄소중립 실천’ 청소년 프로그램 성료

기후·환경 보호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덕진야호청소년센터(센터장 안이순)는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최한 2022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인 ‘기후·환경 보호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덕진야호청소년센터는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최한 2022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인 ‘기후·환경 보호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5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지구를 지켜라’에 참여한 지역 청소년들은 △탄소중립 △제로 웨이스트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에서 플라스틱을 활용한 열쇠고리를 만들고, 재활용 박스를 이용해 피켓과 지구 모양 퍼즐 실천 패브릭을 만들어 한옥마을 JB 문화공간에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는 ‘지구를 지켜라’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안이순 덕진야호청소년센터장은 “기후·환경 위기 대응 교육을 토대로 청소년들이 직접 캠페인을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탄소배출 실태를 파악하고, 탄소중립을 스스로 실천해보면서 지구를 지키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보이스피싱으로 58억 가로챈 총책 항소심도 징역 1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조직을 꾸리고 국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5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초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뒤 모두 52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8억6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용해 볼 생각이 있느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피해자

들을 속였다.

A씨는 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목적으로 총 751개의 체크카드와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487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사장, 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꾸린 뒤 상당원과 국내 인출책 등의 조직원을 선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이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송환을 거부한 점 등을 미뤄볼 때 1심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뉴스